전략연구 2015-22

충남 농공단지의 실태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이 관 률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발 간 사

농공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에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입지해 있고, 지역민 위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의 위해서 농촌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이다. 특히 우리 충남은 1984년 전국에서 최초로 공주장기농공단지를 조성한 지역이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공단지인 90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우리 충남에서 갖는 경제적, 산업적 위상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연구가 부진하였다. 그간 산업단지와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이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산업에 치중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에서 농공단지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충남의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의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공단지와 주변의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의 기능적・공간적 연계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기존의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충남의 농공단지 실태를 단편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우리 충남연구원에서는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위상을 재인식하고, 농공단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농공단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농공단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연구를 수행한 이관률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 많은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충청남도 투자입지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5년 7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 구 요 약

1. 필요성과 목적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농공단지가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농공단지는 우리나라 산업단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농공단지인 공주장기농공단지가 조성되었다는 측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측면, 그리고 농공단지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위상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농공단지의 쇠퇴가 정책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그 주된 이유로 농공단지의 노후화를 꼽고 있다. 현실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조성된 다수의 농공단지가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물리적 기반을 개선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정책수요를 중심으로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이전에 현재 농공단지의 실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농공단지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조성측면, 규모측면, 기업측면, 지원측면 등에서 분석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을 진단하는데 있다. 동 연구는 기존 관련연구가 정책수요에 초점을 두고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는 측면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지역산업에서 농공단지의 비중이 높은 충남을 사례연구로 진행함으로써, 향후 농공단지 관련 정책으로 연구결과가 일반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농공단지를 4가지 유형(노후 소규모 농공단지,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으로 구분하고, 농공단지의 실태를 조성측면, 규모측면, 기업측면, 지원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보았으며,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을 진단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공단지의 조성측면에서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의 4가지 유형별로 지역별 분포는 큰 특징 없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2) 2000년 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노후 소규모, 노후 중규모)는 단독 개발된 반면, 2000년 이후에 조성된 농공단지(일반 소규모, 일반 중규모)는 인근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개발되었다. 3) 4가지 유형 모두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나타났다. 4)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추가지원농어촌지역과 일반농어촌지역에 조성되었고, 2000년 이전에는 일반농공단지가,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일반농공단지와 전문농공단지가 함께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5)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공공주로로 농공단지가 개발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농공단지의 규모측면에서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의 투자비와 분양가는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가 가장 높고, 반면 오후 소규모 농공단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조성연도와 규모에 비해서 투자비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공정율은 4가지 유형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공사기간은 2000년 이후가 그 이전보다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입주기업의 가동연수는 조성연도에 따라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가 2000년대 이후에 조성된 농공단지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2) 조성면적을 보면 농공단지의 대부분의 면적은 산업용지로 개발되고, 지원 및 녹지공간은 매우 제한적으로 조성되었다. 다만 최근에는 녹지면적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4가지 유형의 농공단지 모두 개발된 면적 대부분이 분양되어 비분양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4가지 유형의 농공단지 중 소규모 농공단지(노후, 일반)는 특정 업종으로 입주제한을 하지 않는 반면, 중규모 농공단지(노후, 일반)는 업종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농공단지의 지정 및 준공연도는 4가지 농공단지 유형별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즉 농공단지는 2000년 이전에 지정 및 준공된 경우와 2000년대 이후에 지정 및 준공된 경우로 구분이 된다.

셋째, 농공단지의 기업측면에서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농공단지(노후, 일반)는 입주업체가 10개소 이하인 반면, 중규모 농공단지(노후, 일반)는 20개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4개 농공단지 모두 매우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식료 등 농어촌과 산업적 연계성이 높은 업종은 그 비중이 낮았다. 3) 4개 농공단지의 가동율은 모두 높게 나타났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주계약업체를 기준으로는 가동율이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장설립을 기준으로는 가동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농공단지는 주로 남성의 고용비중이 높은 편이고, 주로 현지 비농가와 외지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지 농가의 고용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편 2000년대 이전 농공단지는 최근 여성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5) 농공단지의 생산액 및 수출액은 양호한 수준이고,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는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에 비해서 생산액과 수출액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농공단지의 지원측면에서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 중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14개소로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폐수처리장의 경우는 폐수처리장이 없는 경우가 더 만지만, 2000년대 이후 조성된 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농공단지 중 근로자아파트가 조성된 경우는 13개소로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근로자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숙사도 26개 농공단지에만 조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공단지에 기숙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탁아소 및 유치원의 경우는 단 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공단지에 탁아소 및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을 살펴보면, 4가지 유형 중에서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가 활성화 수준이 낮고, 그 외 3가지 유형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노후화가 농공단지의 침체요인이라기 보다는 농공단지의 소규모화가 더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충남의 농공단지는 활발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가 지역의 산업과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농공단지의 정책을 단순한 농공단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그리고 산업단지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농공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최소 2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하고, 입주업종을 지역산업과 연계해 제약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농공단지의 입주업종을 음식료품 등으로 제약해 식품산업의 특화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농공단지를 유형화 해 볼 때,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는 물리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 특히 노후 농공단지 중에서 소규모 농공단지에 대한 정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농공단지의 활성화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의 유형별로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선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내용 ····· 4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유형화 ····· 6

1. 선행연구의 고찰 ····· 6

2. 농공단지의 현황 및 유형 ····· 9

제3장 실증분석 ····· 15

1. 조성측면 ····· 15
1) 지역분포 ····· 15
2) 연계개발 ····· 17
3) 조성 및 분양상태 ····· 17
4) 조성지역 및 유형 ····· 19
5) 개발주체 ····· 20

2. 규모측면 ····· 21
1) 투자비 및 조성기간 ····· 21
2) 조성면적 ····· 23
3) 분양면적 ····· 24

4) 업종제한 ····· 25
5) 지정 및 준공연도 ····· 25

3. 기업측면 ····· 28
1) 입주업체수 ····· 28
2) 업종유형 ····· 29
3) 가동율 ····· 31
4) 고용 ····· 31
5) 생산액 및 수출액 ····· 34

4. 지원측면 ····· 35
1) 관리사무소 ····· 35
2) 폐수처리장 ····· 35
3) 근로자아파트 ····· 36
4) 기숙사 ····· 37
5) 탁아소 및 유치원 ····· 38

5. 활성화 수준 ····· 39
1)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 ····· 39
2)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 ····· 40
3)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 ····· 42
4)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 ····· 43
5) 분석결과의 종합 ····· 43

제4장 결론 ····· 45

참고문헌 ····· 49

부록: 충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 ····· 51

표 목 차

<표 1. 1> 농공단지의 비중 ····· 2
<표 1. 2> 충남 농공단지 실태분석의 분석변수 ····· 5
<표 2. 1> 충남 농공단지의 현황 ····· 9
<표 2. 2> 충남 농공단지의 착공연도와 가동업체수 ····· 11
<표 2. 3> 충남 농공단지의 시군별·유형별 현황 ····· 14
<표 3. 1> 충남 농공단지의 시군별 조성현황 ····· 16
<표 3. 2> 농공단지와 인근 단지의 연계여부 ····· 17
<표 3. 3> 농공단지의 조성상태 ····· 18
<표 3. 4> 농공단지의 분양상태 ····· 18
<표 3. 5> 농공단지의 조성지역 유형 ····· 19
<표 3. 6> 농공단지의 유형 ····· 20
<표 3. 7> 농공단지의 개발주체 ····· 21
<표 3. 8> 농공단지의 투자비 및 조성기간 ····· 22
<표 3. 9> 농공단지의 조성면적 및 구성비 ····· 23
<표 3.10> 농공단지의 분양면적 ····· 24
<표 3.11> 농공단지의 유치업종 제한 ····· 25
<표 3.12> 농공단지의 지정연도 ····· 26
<표 3.13> 농공단지의 착공연도 ····· 27
<표 3.14> 농공단지의 완공연도 ····· 28
<표 3.15>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수(2014) ····· 29
<표 3.16> 농공단지의 업종별 가동업체 구성비중 ····· 30
<표 3.17> 농공단지의 가동율 및 증가율 ····· 31
<표 3.18> 농공단지의 고용비중(2014) ····· 32
<표 3.19> 농공단지 고용규모의 변화추이(2012~2014) ····· 33
<표 3.20> 농공단지의 생산액 및 수출액 및 변화추이 ····· 34
<표 3.21> 농공단지의 관리사무소 여부 ····· 35
<표 3.22>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설치여부 ····· 36
<표 3.23> 농공단지의 근로자아파트 설치여부 ····· 37
<표 3.24> 농공단지의 기숙사 설치여부 ····· 37

<표 3.25> 농공단지의 탁아소 및 유치원 설치여부 ····· 38
<표 3.26>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 ····· 39
<표 3.27>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 ····· 41
<표 3.28>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 ····· 42
<표 3.29>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 ····· 43
<표 3.30> 농공단지 활성화 수준의 종합 ····· 43
<표 4. 1> 충남 농공단지 실태분석의 종합 ····· 47

그 림 목 차

[그림 1.1] 충남 농공단지의 조성연도 및 노후정도 ····· 3
[그림 2.1] 충남 농공단지의 유형화 ····· 12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0). 농공단지 조성은 과거 부분적 지원을 하던 새마을공장 건설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인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이동필외, 1996). 이러한 농공단지는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함에 따라 1984년에 7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조성되었고, 그 이후 2015년 현재 전국에 458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현재 농공단지가 전국의 산업단지에 차지하는 비중을 간략히 살펴보면, 단지수 기준으로 43.3%, 가동업체수 기준으로 8.1%, 고용인원 기준으로 7.1%, 생산액 기준으로 4.6%, 수출액 기준으로 2.8%에 해당하고 있다. 당초 농공단지가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농공단지는 우리나라 산업단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1984년 공주장기농공단지를 시작하여 2015년 현재까지 총 90개의 농공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이중 76개는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고, 14개는 조성 중에 있다. 충남의 경우 전국 농공단지 458개의 중 19.7%를 점유하고 있고, 농공단지의 규모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단지인 90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남의 경우, 다른 시도 및 전국에 비해서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농공단지의 위상이 높다. 예컨대 충남의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

가 차지하는 수는 62.9%에 해당하고, 가동업체수 기준으로 46.5%, 고용인원 기준으로 24.6%, 생산액 기준으로 12.2%, 수출액 기준으로 30.7%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의 경우 농공단지가 산업단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정책은 주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에서 농공단지가 제외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2011년 이후부터는 신규 농공단지를 지역특화단지로 한정하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그리고 농공단지의 경우, 다른 산업단지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을 하고,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관련 정책에서 제외된 측면도 있다.

〈표 1.1〉 농공단지의 비중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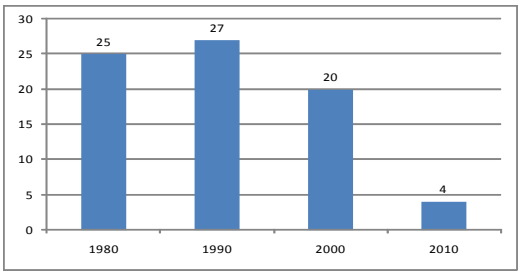
구분		단지수	기업수	고용인원	생산액	수출액
전국	전체	1,058	71,209	2,056,589	785,417,881	328,337,689
	농공	458	5,760	146,980	36,446,909	9,184,833
	국가	41	43,545	1,184,698	495,659,880	206,147,546
	일반	547	21,733	722,825	253,173,371	113,004,122
	도시첨단	12	171	2,086	137,721	1,188
충남	전체	143	2,083	126,000	70,960,300	6,020,000
	농공	90	968	31,000	8,690,400	1,846,000
	국가	5	222	7,000	5,604,100	1,018,000
	일반	47	893	88,000	56,665,800	3,156,000
	도시	1	0	0	0	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또한 농공단지와 관련된 연구도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농공단지가 조성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농공단지를 주제로 한 학술연구는 불과 4편(이철우(2008), 우장명(2008), 임유라외(2010), 장철순(2011))에 실정이고, 관련 정책연구 또한 5편(이동필외(1996), 배경화외(2005), 김선배외(2010), 최경환외(2012), 최경환외(20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산업단지 관련정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농공단지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관련된 연구는 “농공단지 개발 및 지원업무편람(2008)” 과 정기간행물 산업입지(제27호, 2014) 1번을 발행한 수준이다. 그간 농공단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측면, 그리고 농공단지에 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 단순히 농공단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주장만을 단편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으로 최경환외(2012)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농공단지 정밀실태조사 실시” 를 제안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존의 관련연구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치중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은 주로 물리적 기반 확충과 세제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년 이상 노후 농공단지 비중	60.5%
농공단지의 평균 조성연수	18.7년

〔그림 1.1〕 충남 농공단지의 조성연도 및 노후정도

현실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조성된 다수의 농공단지가 노후화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실제 충남의 경우도 전체 60.5%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농공단지이고, 농공단지의 평균 조성연수가 18.7년이다. 그러나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물리적 기반을 개선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든다. 또한 지금 농공단지가 침체되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은 농공단지가 조성된 10년 이후에 입주했기 때문이다(이관률, 2014).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정책수요를 중심으로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이전에 현재 농공단지의 실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농공단지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조성측면, 규모측면, 기업측면, 지원측면 등에서 분석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을 진단하는데 있다. 동 연구는 기존 관련연구가 정책수요에 초점을 두고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는 측면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지역산업에서 농공단지의 비중이 높은 충남을 사례연구로 진행함으로써, 향후 농공단지 관련 정책으로 연구결과가 일반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전국에서 농공단지가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고, 지역산업구조에서 농공단지의 위상이 높은 충남지역을 사례로 하여 "농공단지의 실태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이론연구와 충남 농공단지 실태분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공단지의 이론연구에서는 농공단지의 조성목적과 추진과정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고, 기존 농공단지 관련연구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실태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도록 한다. 둘째, 충남 농공단지의 실태분석은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태분석은 조성측면, 규모측면, 기업측면, 지원측면으로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태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농공단지의 실태분석을 2차 자료 중심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공단지 현황(2014)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현황, 그리고 충남도의 농공단지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2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충남도의 90개 농공단지별로 분석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축된 DB를 토대로 4개 유형별로 χ^2-test와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농공단지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2차 자료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세부변수들은 <표 1.2>와 같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유형별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업체수, 가동율, 고용인원, 생산액, 수출액의 표준점수 평균을 산정하도록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농공단지의 정책수요와 활성화 방안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농공단지를 유형화한 이후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농공단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농공단지의 정책수요와 활성화 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해야 할 시간적(연구기간 6개월) 제약성으로 인해 부득이 농공단지의 정책수요 파악과 활성화 방안 모색은 차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1.2〉 충남 농공단지 실태분석의 분석변수

구분	세부지표
조성측면	지역분포, 연계개발, 조성 및 분양상태, 조성지역 및 유형, 개발주체
규모측면	투자비 및 조성기간, 조성면적, 분양면적, 업종제한, 지정 및 준공연도
기업측면	입주업체수, 업종유형, 가동율, 고용, 생산액 및 수출액
지원측면	관리사무소, 폐수처리장, 근로자아파트, 기숙사, 탁아소 및 유치원
활성화수준	업체수, 가동율, 고용인원, 생산액, 수출액의 표준점수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유형화

1. 선행연구의 고찰

기본적으로 농공단지와 관련된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공단지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농공단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정책연구와 학술연구로 구분이 된다.

우선 농공단지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연구로는 이동필외(1996), 배경화외(2005), 김선배외(2010), 최경환외(2012), 최경환외(2014) 등이 있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동필외(1996)은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에서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화여 인구를 현지에 정착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지역의 특색 있는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② 광역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농공단지 개발제도의 도입, ③ 농어촌산업지구의 지정과 지원 대상 업종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배경화외(2005)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농공단지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 지역별로 농공단지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유형별 분류의 중요성 지적하고, 산업창출형 농공단지와 산업복합형

농공단지로 전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선배외(2010)는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수요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으로 농공단지 중장기 육성 기본계획 수립, 노후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산학융합플라자 설립을 통한 혁신역량, 농어촌산업 발전권 단위의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바우처를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경환외(2012)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에서 ① 농공단지 정밀실태조사 실시, ②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기존 농공단지 활용 우선 고려, ③ 지자체 농공단지 내실화 도모, ④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⑤ 농공단지 제품의 우선 구매 지원, ⑥ 통합지침 개정, ⑦ 중앙정부 농공단지 관련업무의 통합 및 일원화, ⑧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기준 명확화, ⑨ 공용오폐수 처리시설 지원, ⑩ 대체입주 촉진, ⑪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⑫ 지자체장의 관심 유도, ⑬ 지역특화농공단지 입주업체 업종의 확대, ⑭ 지역특화단지의 차별화와 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최경화외(2014)는 “농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에서 농공단지 정책수요 분석과 더불어 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활성화 방안으로 입주규제 완화를 통한 6차산업화 단지로 발전, 지역특화농공단지 계획제도 도입, 농공단지협의회의 중간지원조직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산학연관 협력클러스터화로 혁신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농공단지와 관련된 학술연구로는 이철우(2008), 우장명(2008), 임유라외(2010), 장철순(2011)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이철우(2008)는 “대도시 주변 농공단지의 존립기반과 정책적 함의” 에서 입주기업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주요 입주요인으로 저렴한 지가를 꼽고 있다. 그리고 향후 농공단지 재구조화 정책에서는 산학연계를 통한 기술혁신 지원, 관련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집적강화, 그리고 농공단지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문화를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사회자본의 축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우장명(2008)은 “충북의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에서 관리 및 지원확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육성, 기술혁신 및 맞춤연계 지원, 구인애로 해소 및 인력개발 지원, 관련협의회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임유라외(2010)는 “농공단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에서 규모와 규모성장률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농공단지를 구분했고, 전반적으로 농공단지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공간적 분포가 일정한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농공단지의 관리나 개발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은 주변 농공단지와 연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장철순(2011)은 “농공단지의 노후도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에서 물리적 지표, 생산성 지표, 부지활용지표 등을 통해 농공단지의 노후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지표와 생산성 지표, 부지활용지표에 따른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공단지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입주기업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농공단지의 유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농공단지의 입지적 특성이 아닌 활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임유라외(2010)과 장철순(2011)이 유일하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농공단지의 객관적인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이 국가산단 혹은 일반산단의 활성화 정책과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 더욱이 기존 관련연구에서는 농공단지의 조성목적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단지 산업단지의 관점에서 접근한 한계점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선행연구는 농공단지와 지역산업의 연계성을, 농공단지와 농업의 연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농공단지의 실태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1차 자료인 수요조사를 토대로 진행되었다는 측면과 차별성을 갖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농공단지를 산업단지의 관점이 아니라 농공단지와 지역산업과 관계성, 특히 농업(혹은 6차산업화 등)과의 관계성을 설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충남을 사례로 한 본 연구는 전국에서 농공단지가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가 할 것이다.

2. 농공단지의 현황 및 유형

2015년 현재 충남에는 총 90개의 농공단지가 조성완료 및 조성 중에 있다. 이중에서 구례(논산), 은산패션전문(부여), 계룡제1(계룡)의 3개 농공단지는 현재 분양계획 단계에 있다. 따라서 현재 분양계획 단계에 있는 3개 농공단지를 제외한 87개의 농공단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농공단지가 가장 많이 조성된 곳은 공주로 11개소이고, 그 다음으로 아산, 논산, 홍성이 9개소이며, 예산과 당진이 각각 8개소와 7개소 있다. 반면 농공단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태안과 계룡이 1개소, 천안과 서산이 각각 4개소, 서천, 청양이 각각 5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충남 농공단지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조성 및 분양 중(87)	분양계획(3)
천안(4)	동면, 목천, 백석, 직산	-
공주(11)	계룡, 정안, 월미2, 검상, 장기, 보물, 우성전문, 유구, 월미, 의당복합, 정안2	-
보령(7)	주산, 대천, 웅천, 웅천석재, 주포, 주포제2, 청소	-
아산(9)	둔포, 배미, 신인, 신창, 영인, 탕정, 득산, 도고, 둔포제2	-
서산(4)	고북, 수석, 명천자동차전문, 성연	-
논산(9)	은진, 강경, 가야곡, 연산, 동산, 양지, 양지제2, 연무	구례
계룡(1)	-	계룡제1
당진(7)	당진, 면천, 석문, 신평, 합덕, 한진, 송악	-
금산(4)	금성, 복수, 인삼약초특화, 추부	-
부여(6)	임천, 장암, 홍산, 은산, 은산2	은산패션전문
서천(5)	서면(김가공특화), 종천2, 장항원수, 종천, 장항원수제2	-
청양(5)	비봉, 정산, 운곡, 화성, 학당, 운곡2	-
홍성(9)	갈산2전문, 광천, 구항. 광천김특화, 은하, 은하전문, 갈산전문, 결성전문	-
예산(8)	고덕, 예덕, 응봉, 예산, 관작전문, 삽교전문, 증곡전문, 신암	-
태안(1)	태안	-

한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농공단지의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컨대 배경화외(2005)는 농공단지의 문제점으로 농공단지 자체의 문제점, 농공단지 운영상의 문제점, 법적・제도적 문제점,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문제점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우선 농공단지 자체의 문제점으로는 농공단지의 지리적 격리성, 소규모 농공단지의 경쟁력 저하, 농공단지 조성지역 주민의 노령화, 농공단지 주변 교통여건의 불리를, 농공단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농공단지 유형구분의 실효성 저하, 자금지원위주의 입주기업 지원, 지속적인 사후관리계체제 미흡을, 법적・제도적 문제점으로는 농공단지의 소유권 불일치 문제, 농공단지 입주 이후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 입주 후 장기 휴폐업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미흡, 농공단지 개발 및 관리체계의 미흡을, 끝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입주 미흡, 입주기업의 입주형태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김선배외(2010)는 농공단지의 문제점으로 교통・인력 등 전반적인 입지 여건의 불리, 입지에 따른 지리적 격리성, 단지의 노후화 및 소규모 단지개발, 농공단지의 면적 당 개발비와 분양가 상승, 농공단지 유치업종의 특성화 미흡, 지역자원과 연계 미흡, 입지공급 위주의 폐쇄적 정책으로 개방적 활성화 전략 부재, 노후단지를 포함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 미흡, 산업・기능・단지 간 연계 역량 미흡, 농공단지 지정 절차의 복잡성, 농공단지의 소유권 불일치, 단순관리 위주로 체계적 발전계획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경환외(2012, 2014)는 농공단지의 문제점으로 단지의 협소, 단지 주변 도로 협소, 단지 시설 환경 불량, 장기적인 휴폐업 업체, 농공단지의 명칭 문제, 근로자의 통근수단 및 복지시설 부족, 농공단지의 정책적 배제, 지역산업과 연계성 부족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농공단지의 문제점 중 단지적 특성과 관계된 것을 꼽는다면 농공단지의 노후화, 소규모, 그리고 지리적 격리성 3가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농공단지의 지리적 격리성은 주변의 공간적 변화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농공단지의 노후화와 소규모를 기준으로 농공단지를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2〉 충남 농공단지의 착공연도와 가동업체수

(단위: 개소, %)

착공연도			가동업체수		
착공연도	빈도	구성비	업체수	빈도	구성비
1986	1	1.22	0	11	12.64
1987	1	1.22	1	6	6.9
1988	6	7.32	2	8	9.2
1989	10	12.2	3	10	11.49
1990	4	4.88	4	4	4.6
1991	6	7.32	5	2	2.3
1992	7	8.54	6	3	3.45
1993	2	2.44	7	4	4.6
1994	3	3.66	8	6	6.9
1995	3	3.66	9	2	2.3
1996	2	2.44	10	1	1.15
1997	2	2.44	11	3	3.45
1998	1	1.22	12	1	1.15
1999	1	1.22	13	4	4.6
2001	2	2.44	14	2	2.3
2002	1	1.22	16	3	3.45
2003	1	1.22	17	3	3.45
2004	2	2.44	19	2	2.3
2005	2	2.44	23	4	4.6
2006	1	1.22	24	1	1.15
2007	6	7.32	26	1	1.15
2008	2	2.44	27	1	1.15
2009	1	1.22	28	1	1.15
2010	1	1.22	29	2	2.3
2011	1	1.22	34	1	1.15
2012	2	2.44	122	1	1.15
2013	5	6.1			
2014	6	7.32			

우선 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이 농공단지의 노후화이다(김선배외, 2011, 최경환, 2012, 조혜영, 2014, 김영수, 2014, 장철순, 2015). 즉 농공단지가 노후화되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조성연도는 농공단지 유형화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우선 농공단지의 조성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87개의 농공단지 중 착공연도를 살펴보면, 1999년까지 조성된 농공단지가 49개소로 전체의 60%에 해당된다. 따라서 다수의 농공단지가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약 40%의 농공단지가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의 노후화는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로 구분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공단지의 특성 중의 하나가 소규모이다(이동필, 2010, 김선배, 2011, 최경환 2012). 즉 농공단지가 너무 소규모라서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공단지의 가동업체수를 기준으로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다. 농공단지 중 10개 이하의 기업체가 가동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총 57개소로 전체의 65.5%에 해당된다. 그리고 10개 이상의 기업체가 가동 중인 농공단지는 30개이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가동업체 10개를 기준으로 소규모와 중규모로 구분이 가능하다.

		가동업체 수	
		10개 이하	11개 이상
조성연도	2000년 이전	30개소(34.5%)	24개소(27.6%)
	2001년 이후	27개소(31.0%)	6개소(6.9%)

〔그림 2.1〕 충남 농공단지의 유형화

제1유형: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30개소)
제2유형: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24개소)
제3유형: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27개소)
제4유형: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6개소)

따라서 조성연도와 가동업체수를 기준으로 충남의 87개 농공단지를 유형화하면 <그림 2.1>와 같다. 즉 2000년 이전에 조성되었고, 가동업체가 10개 이하인 농공단지는 30개소이고(1유형: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 2000년 이전에 조성되었고, 가동업체가 10개 이상인 농공단지는 24개소(2유형: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이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조성되었고, 가동업체가 10개 이하인 농공단지는 27개소이고(3유형: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 2001년 이후에 조성되었고, 가동업체가 10개 이상인 농공단지는 6개소(4유형: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이다.

한편 농공단지의 유형별 조성현황을 시군별, 단지별로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15개 시군 중에서 농공단지가 현재 조성 중인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제4유형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유형은 시군별로 차이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충남 농공단지의 시군별·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1유형 (30)	2유형 (24)	3유형 (27)	4유형 (6)
천안 (4)	동면, 목천	백석, 직산	-	-
공주 (11)	계룡, 정안, 월미2	검상, 장기	보물, 우성전문, 유구, 월미, 의당복합	정안2
보령 (7)	주산	대천, 웅천, 웅천석재, 주포	주포제2, 청소	-
아산 (9)	둔포, 배미, 신인, 신창, 영인, 탕정	득산	도고, 둔포제2	-
서산 (4)	고북	수석	명천자동차전문, 성연	-
논산 (8)	은진, 강경	가야곡, 연산	동산, 양지, 양지제2, 연무	-
계룡 (0)	-	-	-	-
당진 (7)	당진, 면천, 석문, 신평	합덕	한진	송악
금산 (4)	-	금성, 복수	인삼약초특화	추부
부여 (5)	임천, 장암, 홍산	은산	은산2	-
서천 (5)	서면(김가공특화) , 종천2	장항원수, 종천	장항원수제2	-
청양 (5)	비봉, 정산	운곡, 화성	학당, 운곡2	-
홍성 (9)	갈산2전문	광천, 구항	광천김특화, 은하, 은하전문	갈산전문, 결성전문
예산 (8)	고덕, 예덕, 응봉	예산	관작전문, 삽교전문, 증곡전문	신암
태안 (1)	-	태안	-	-

제3장 실증분석

1. 조성측면

1) 지역분포

충남에는 모두 87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를 시급과 군급으로 구분해 보면, 시급에 50개(57.5%), 군급에 37개(42.5%)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는 시급과 군급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 세분해 보면, 시급에서는 공주(11개)에 가장 많은 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아산(9개), 논산(8개), 당진(7개) 순이다. 그리고 군급에서는 홍성(9개)에 가장 많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예산(8개) 순이다. 반면 계룡[1)]의 경우 농공단지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를 농공단지의 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농공단지의 유형이 시군별로 상이한 분포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농공단지 유형별로 15개 시군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χ^2=33,3302, prob=0.7256).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공단지의 유형에 따라 시급 혹은 군급, 그리고 시군별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계룡시의 경우, 현재 계룡제1농공단지가 2014년에 착공 중에 있다. 계룡제1농공단지는 조성 중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3.1〉 충남 농공단지의 시군별 조성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시지역	소계	50 (57.5)	19 (36.3)	13 (54.2)	16 (59.3)	2 (33.3)
	천안	4 (4.6)	2 (6.7)	2 (8.3)	0 (0.0)	0 (0.0)
	공주	11 (12.6)	3 (10.0)	2 (8.3)	5 (18.5)	1 (16.7)
	보령	7 (8.1)	1 (3.3)	4 (16.7)	2 (7.4)	0 (0.0)
	아산	9 (10.3)	6 (20.0)	1 (4.2)	2 (7.4)	0 (0.0)
	서산	4 (4.6)	1 (3.3)	1 (4.2)	2 (7.4)	0 (0.0)
	논산	8 (9.2)	2 (6.7)	2 (8.3)	4 (14.8)	0 (0.0)
	계룡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진	7 (8.1)	4 (13.3)	1 (4.2)	1 (3.7)	1 (16.7)
군지역	소계	37 (42.5)	11 (36.7)	11 (45.8)	11 (40.7)	4 (66.7)
	금산	4 (4.6)	0 (0.0)	2 (8.3)	1 (3.7)	1 (16.7)
	부여	5 (5.8)	3 (10.0)	1 (4.2)	1 (3.7)	0 (0.0)
	서천	5 (5.8)	2 (6.7)	2 (8.3)	1 (3.7)	0 (0.0)
	청양	5 (5.8)	2 (6.7)	2 (8.3)	1 (3.7)	0 (0.0)
	홍성	9 (10.3)	1 (3.3)	2 (8.3)	4 (14.8)	2 (33.3)
	예산	8 (9.2)	3 (10.0)	1 (4.2)	3 (11.1)	1 (16.7)
	태안	1 (1.2)	0 (0.0)	1 (4.2)	0 (0.0)	0 (0.0)

χ^2=33.3302, df=39, prob=0.7256

2) 연계개발

농공단지는 개발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근의 농공단지와 연계되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농공단지가 인근의 농공단지와 연계되어 개발된 경우는 37개소(42.5%)이고, 그 외 50개소(57.5%)는 연계 개발되지 않았다.

이를 농공단지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제1유형과 제2유형은 인근의 농공단지와 연계되어 개발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제3유형과 제4유형은 연계 개발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2=8.0862, prob=0.0443).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과거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타 농공단지와 연계 개발되지 못한 반면, 최근 조성된 농공단지는 인근의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개발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2〉 농공단지와 인근 단지의 연계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유	37 (42.5)	8 (26.7)	9 (37.5)	17 (63.0)	3 (50.0)
무	50 (57.5)	22 (73.3)	15 (62.5)	10 (37.0)	3 (50.0)

χ^2=8.0862, df=3, prob=0.0443

3) 조성 및 분양상태

87개의 농공단지 중에서 기 완료된 농공단지는 79개소(90.8%)이고, 나머지 8개는 현재 조성 중에 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제1유형과 제2유형은 현재 조성 중인 농공단지가 각각 5개소와 3개소가 있는 반면, 제2유형과 제4유형의 농공단지는 모두 조성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공단지의 4가지 유형별로 조성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χ^2=5.1622, prob=0.1603).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공단지는 대부분 조성완료된 상태이고, 4개 유형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 농공단지의 조성상태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완료	79 (90.8)	25 (83.3)	24 (100.0)	24 (88.9)	6 (100.0)
조성 중	8 (9.2)	5 (16.7)	0 (0.0)	3 (11.1)	0 (0.0)

χ^2=5.1622, df=3, prob=0.1603

농공단지 중에서 분양이 완료된 곳은 모두 77개소(88.5%)이고, 현재 분양 중인 곳은 10개소(11.5%)에 불과하다. 현재 분양 중인 농공단지는 제1유형과 제3유형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농공단지의 유형에 따라 분양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χ^2=5.1622, prob=0.1603).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4〉 농공단지의 분양상태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분양완료	77 (88.5)	26 (86.7)	24 (100.0)	21 (77.8)	6 (100.0)
분양 중	10 (11.5)	4 (13.3)	0 (0.0)	6 (22.2)	0 (0.0)

χ^2=7.0504, df=3, prob=0.0703

4) 조성지역 및 유형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농어촌지역은 우선지원농어촌, 일반농어촌, 그리고 추가지원농어촌으로 구분이 된다. 추가지원농어촌지역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53개소(60.9%)이고, 일반농어촌지역에 조성된 경우는 27개소(31.0%)이다. 그리고 우선지원농어촌지역에 조성된 경우는 7개소(8.1%)이다. 따라서 농공단지는 주로 추가지원농어촌지역과 일반농어촌지역에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농공단지의 4가지 유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유형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구분이 상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χ^2=9.0594, prob=0.1703). 즉 농공단지는 주로 추가지원농어촌지역과 일반농어촌지역에 조성되어 있고, 우선지원농어촌지역에는 조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5〉 농공단지의 조성지역 유형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우선지원농어촌	7 (8.1)	2 (6.7)	3 (12.5)	2 (7.4)	0 (0.0)
일반농어촌	27 (31.0)	15 (50.0)	5 (20.8)	6 (22.2)	1 (16.7)
추가지원농어촌	53 (60.9)	13 (43.3)	16 (66.7)	19 (70.4)	5 (83.3)

χ^2=9.0594, df=6, prob=0.1703

농공단지의 유형은 크게 일반농공단지, 전문농공단지, 그리고 지역특화농공단지로 구분이 된다. 현재 일반농공단지는 71개소로 전체의 81.6%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일반농공단지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전문농공단지가 13개소(14.9%), 그리고 지역특화농공단지가 3개소(3.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농공단지 4개 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χ^2=18.518, prob=0.0048). 즉 1유형과 2유형은 주로 일반농공단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3유형과 4유형은 상대적으로 전문농공단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일반농공단지가 조성되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일반농공단지와 전문농공단지가 함께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6〉 농공단지의 유형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일반농공단지	71 (81.6)	28 (93.3)	23 (95.8)	17 (63.0)	3 (50.0)
전문농공단지	13 (14.9)	1 (3.3)	1 (4.2)	8 (29.6)	3 (50.0)
지역특화농공단지	3 (3.5)	1 (3.3)	0 (0.0)	2 (7.4)	0 (0.0)

χ^2=18.6518, df=6, prob=0.0048

5) 개발주체

농공단지의 개발주체는 크게 시군의 공공부문과 개별 기업의 민간부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체 농공단지 중에서 공공이 개발한 경우는 60개소(69.0%)이고, 민간이 개발한 경우는 27개소(31.0%)이다. 따라서 농공단지는 공공주도와 민간참여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공단지의 유형에 따라서는 개발주체가 다소간 차이가 있다(χ^2=17.3493, prob=0.0006). 즉 제1유형과 제2유형은 주로 공공이 주도하여 추진한 만면, 제3유형과 제4유형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공공이 주도하여 농공단지를 개발하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7〉 농공단지의 개발주체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공공	60 (69.0)	20 (66.7)	24 (100.0)	13 (48.2)	3 (50.0)
민간	27 (31.0)	10 (33.3)	0 (0.0)	14 (51.9)	3 (50.0)

χ^2=17.3493, df=3, prob=0.0006

2. 규모측면

1) 투자비 및 조성기간

농공단지의 평균 투자비는 83.53억원이고, 조성공정율은 97.38%, 공사기간은 2.52년, 준공이후 가공연수는 16.60년, 그리고 분양가는 59,544.82원/㎡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농공단지는 중소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고, 대부분의 사업이 3년내로 단기간에 진행되었으며, 사업의 진행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평균적으로 16년 이상된 노후단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농공단지 4개의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조성공정율 이외에 투자비, 공사기간, 가동연수, 그리고 분양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투자비 측면에서 볼 때, 4유형의 투자비는 174.6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유형이 126.6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유형과 2유형은 각각 45.59억원과 58.08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거에는 농공단지의 조성규모에 따라 투자비 차이가 없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농공단지의 규모에 따라 투자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값=13.61, prob=0.0001).

둘째, 조성공정율은 농공단지 4개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값=0.99, prob=0.4022). 즉 농공단지는 평균 공정율이 97% 이상으로 높은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표 3.8〉 농공단지의 투자비 및 조성기간

(단위: 억원, %, 년, 원/㎡)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F값 (prob)
투자비	83.53	45.59[c]	58.08[c]	126.67[b]	174.67[a]	13.61 (0.0001)
조성공정율	97.38	94.40	100.00	97.78	100.00	0.99 (0.4022)
공사기간	2.52	1.16[b]	1.58[b]	3.93[a]	5.67[a]	7.57 (0.0002)
가동연수	16.60	23.56[a]	23.71[a]	6.00[b]	6.83[b]	151.33 (0.0001)
분양가	59,544.82	39,621.17[b]	37,668.70[b]	94,472.38[a]	100,851.50[a]	9.24 (0.0001)

셋째, 공사기간은 2000년대 이후에 조성된 농공단지가 그 이전의 농공단지에 비해서 많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F값=7.57, prob=0.0002). 즉 2000년대 이후에 조성된 3유형과 4유형은 각각 3.93년과 5.67년이 소요된 반면,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된 1유형과 2유형은 각각 1.16년과 1.58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0년대 이전의 농공단지는 2년 이내의 짧은 조성기간이 소요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4년 이상의 조성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동연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16.6년으로 나타나, 농공단지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공단지의 유형에 따라 노후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값=151.33, prob=0.0001). 즉 1유형과 2유형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인 반면에, 3유형과 4유형은 6년 정도이다. 그러므로 모든 농공단지가 노후화되었다고 일반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다섯째, 농공단지의 분양가는 59.544.82원/㎡이지만, 이 또한 농공단지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값=9.24, prob=0.0001). 즉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된 1유형과 2유형은 분양가가 각각 39,621.17원/㎡과 37,668.17원/㎡인 반면, 3유형과 4유형은 94,472.33원/㎡과 100,851.50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분양가는 그 이전의 농공단지에 비해서 약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 조성면적

농공단지의 지정면적은 157.77천㎡이고 관리면적은 157.29천㎡로 전반적으로 농공단지의 규모가 소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공단지의 규모는 4개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F값=2.06, prob=0.1113; F값=2.04, prob=0.1143). 한편 지정면적의 구성비중을 살펴보면, 관리면적은 지정면적의 99.75%이고, 산업용지는 76.41%, 지원용지는 3.36%, 공공용지는 12.66%, 녹지구역은 7.06%, 주거구역은 0.02%, 그리고 기타면적은 0.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공단지는 지정면적 대부분을 개발하였고, 절대 면적이 산업용지로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원용지와 녹지구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9〉 농공단지의 조성면적 및 구성비

(단위: 천㎡,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F값 (prob)
지정면적		157.77	126.60	183.42	162.93	187.83	2.06 (0.1113)
관리면적		157.29	126.07	182.08	163.19	187.67	2.04 (0.1143)
구성비	관리면적	99.75	99.39	99.22	100.59	99.93	0.86 (0.4669)
	산업용지	76.41	78.56	76.76	74.21	74.18	1.25 (0.2963)
	지원용지	3.36	3.64	4.04	2.24	4.33	0.94 (0.4185)
	공공용지	12.66	11.65	13.45	13.65	10.09	0.71 (0.5473)
	녹지구역	7.06	5.48[b]	4.61[b]	10.03[ab]	11.33[a]	3.58 (0.0172)
	주거구역	0.02	0.05	0.00	0.00	0.00	0.63 (0.6008)
	기타	0.24	0.00	0.36	0.46	0.00	0.69 (0.5636)

이러한 경향은 농공단지의 4개 유형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녹지구역은 4유형이 11.33%로 다소 높은 편이고, 반면 1유형과 2유형은 5.48%와 4.6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F값=3.58, prob=0.0172). 그러므로 농공단지는 소규모 산업단지로 지정면적이 대부분이 산업용지로 개발되었고, 지원 및 녹지공간은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농공단지 중 4유형은 1유형과 2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분양면적

농공단지의 분양면적은 평균적으로 117.78천㎡인데, 이중에서 분양면적은 114.07천㎡이고, 미분양면적은 3.71천㎡이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분양률은 93.52%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분양대상면적(F값=2.25, prob=0.0884), 분양면적(F값=2.44, prob=0.0702), 미분양면적(F값=1.56, prob=0.2063), 그리고 분양률(F값=1.46, prob=0.2302)은 농공단지 4개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는 개발된 면적 대부분이 분양되어 실제 미분양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농공단지의 분양면적

(단위: 천㎡,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F값 (prob)
분양대상	117.78	92.50	142.29	119.56	138.17	2.25 (0.0884)
분양면적	114.07	89.27	142.29	111.19	138.17	2.44 (0.0702)
미분양	3.71	3.23	0.00	8.37	0.00	1.56 (0.2063)
분양률	93.52	89.40	100.00	90.89	100.00	1.46 (0.2302)

4) 업종제한

농공단지 중에서 특정 업종으로 입주를 제한하여 조성한 경우는 20개소(23.0%)이고, 67개소(77.0%)의 농공단지는 입주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공단지의 유형에 따라 특정업종으로 제한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χ^2=7.9418, prob=0.0472). 즉 1유형과 3유형의 농공단지는 2유형과 4유형에 비해서 특정업종으로 제한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특정 업종으로 입주를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10개 업체 미만의 소규모 농공단지에서는 특정 업종으로 입지를 제한한 경우가 중규모 농공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11〉 농공단지의 유치업종 제한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특정 업종 제한	20 (23.0)	8 (26.7)	2 (8.3)	10 (37.0)	0 (0.0)
업종 제한 없음	67 (77.0)	22 (73.3)	22 (91.6)	17 (62.9)	6 (100.0)

χ^2=7.9418, df=3, prob=0.0472

5) 지정 및 준공연도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2010년대 이전에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80년대에 지정된 경우가 41개소(47.1%)이고, 1990년대 지정된 경우가 14개소(16.1%), 2000년대에 지정된 경우가 30개소(34.5%)이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지정된 농공단지는 불과 2개소(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주로 1980년대와 2000년대에 지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농공단지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χ^2=59.0538, prob=0.0001).

우선 1유형과 2유형은 주로 1980년대에 지정된 반면, 3유형과 4유형은 주로 2000년대에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2〉 농공단지의 지정연도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1980년대	41 (47.1)	18 (60.0)	20 (83.3)	2 (7.4)	1 (16.7)
1990년대	14 (16.1)	7 (23.3)	4 (16.7)	3 (11.1)	0 (0.0)
2000년대	30.0 (34.5)	3.0 (10.0)	0.0 (0.0)	22.0 (81.5)	5.0 (83.3)
2010년대	2 (2.3)	2 (6.7)	0 (0.0)	0 (0.0)	0 (0.0)

χ^2=59.0538, df=9, prob=0.0001

농공단지의 착공연도를 살펴보면, 36개소(41.4%)가 198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1990년대에 19개소(21.8%), 2000년대에 2개소(27.6%)가 착공되었다. 반면 2010년 이후에 착공된 경우는 불과 8개소(9.2%)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공단지는 주로 1980년대에 착공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착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최근에는 농공단지의 착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농공단지의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개별 유형에 따라 농공단지의 착공연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χ^2=55.8891, prob=0.0001). 즉 1유형과 2유형은 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착공된 반면, 3유형과 4유형은 주로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착공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3〉 농공단지의 착공연도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1980년대	36 (41.4)	15 (50.0)	18 (75.0)	2 (7.4)	1 (16.7)
1990년대	19 (21.8)	10 (33.3)	6 (25.0)	3 (11.1)	0 (0.0)
2000년대	24 (27.6)	2 (6.7)	0 (0.0)	17 (63.0)	5 (83.3)
2010년대	8 (9.2)	3 (10.0)	0 (0.0)	5 (18.5)	0 (0.0)

χ^2=55.8891, df=9, prob=0.0001

농공단지의 완공연도를 살펴보면, 착공연도와 유사하게 198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대에는 27개소(31.0%)가 완공되었고, 1990년대에는 27개소(31.0%), 2000년대에는 19개소(21.8%), 그리고 2010년대에는 14개소(16.1%)가 완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완공되는 농공단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공단지의 유형에 따라 농공단지의 완공시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χ^2=88.1375, prob=0.0001). 즉 1유형과 2유형은 주로 1980년대와 1990년에 완공된 반면, 3유형과 4유형은 주로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완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4〉 농공단지의 완공연도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1980년대	27 (31.0)	16 (53.3)	11 (45.8)	0 (0.0)	0 (0.0)
1990년대	27 (31.0)	14 (46.7)	13 (54.2)	0 (0.0)	0 (0.0)
2000년대	19 (21.8)	0 (0.0)	0 (0.0)	15 (55.6)	4 (66.7)
2010년대	14 (16.1)	0 (0.0)	0 (0.0)	12 (44.4)	2 (33.3)

χ^2=88.1375, df=9, prob=0.0001

3. 기업측면

1) 입주업체수

농공단지의 평균 입주계약 업체수는 11.23개소이고, 실제 설립된 업체는 10.7개소, 건설 중인 업체는 0.4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폐업 업체수는 0.70개소로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10개소 내외이고, 실제 계약업체 대부분이 설립·가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입주계약 업체수는 상대적으로 농공단지의 규모가 큰 2유형과 4유형이 1유형과 3유형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값=17.64, prob=0.0001). 즉 2유형의 입주계약 업체수는 25.00개소, 4유형은 19.17개소인 반면, 1유형과 3유형은 4.20개소와 5.0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설립업체수와 가동업체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휴폐업 업체수는 농공단지 4개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F값=2.23, prob=0.0903). 따라서 농공단지에서 휴폐업은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5〉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수(2014)

(단위: 개소)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F값 (prob)
입주계약 업체수		11.23	4.20[b]	25.00[a]	5.04[b]	19.17[a]	17.64 (0.0001)
설립	소계	10.74	3.80[b]	25.00[a]	4.04[b]	18.50[a]	18.77 (0.0001)
	가동	10.03	3.60[b]	23.67[a]	3.41[b]	17.50[a]	17.01 (0.0001)
	휴폐업	0.70	0.20	1.33	0.63	1.00	2.23 (0.0903)
건설 중	소계	0.49	0.40[ab]	0.00[b]	1.00[a]	0.67[ab]	2.98 (0.0359)
	건설	0.31	0.30	0.00	0.56	0.50	2.11 (0.1051)
	미착공	0.18	0.10	0.00	0.44	0.17	1.09 (0.3560)

2) 업종유형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업종분포를 살펴보면, 기계가 16.7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석유화학(14.94%), 음식료(13.26%), 비금속(131.5%), 운송장비(12.09%)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업종의 구성비중은 낮은 것은 비제조(0.78%), 목재종이(1.72%), 섬유의복(3.0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농어촌기반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산업적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음식료의 비중은 13.26%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업종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고, 특정 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농공단지의 입주업종은 매우 다양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주업종의 구성은 4개의 농공단지 유형별로 통계적인 차이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목재종이의 경우는 2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3유형에서 가장 작은 비중은 보이고 있는 부문적인 차이점과 나타나고 있다(F값=4.00, prob=0.0110).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공단지는 4개 유형별로 입주업종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매우 다양한 업종

이 입주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농어촌과 산업적 연계성이 높은 음식료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6〉 농공단지의 업종별 가동업체 구성비중

(단위: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F값 (prob)
음식료	13.26	12.06	13.14	17.75	3.63	0.65 (0.5873)
섬유의복	3.05	2.31	6.04	1.25	0.00	1.44 (0.2387)
목재종이	1.72	0.52[ab]	4.14[a]	0.00[b]	2.54[ab]	4.00 (0.0110)
석유화학	14.94	18.70	15.63	7.50	21.94	1.35 (0.2665)
비금속	13.15	12.49	13.29	17.71	0.00	0.74 (0.5343)
철강	7.66	13.23	4.45	3.21	13.01	1.88 (0.1406)
기계	16.79	21.16	14.45	16.08	11.05	0.43 (0.7301)
전기전자	8.19	4.44	12.00	6.46	13.73	1.35 (0.2652)
운송장비	12.09	7.35	6.97	20.45	23.67	2.47 (0.0688)
기타	8.37	6.22	9.00	9.58	10.42	0.16 (0.9244)
비제조	0.78	1.50	0.89	0.00	0.00	0.69 (0.5629)

3) 가동율

농공단지의 가동율은 입주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80.71%이고, 공장설립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84.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가동율은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농공단지의 4개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각 유형별로 입주계약업체와 공장설립업체 기준의 가동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F값=2.48, prob=0.0666; F값=1.42, prob=0.2442). 따라서 농공단지의 가동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2년간 공장가동율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입주계약업체 기준으로는 5.06% 증가한 반면, 공장설립업체 기준으로는 0.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2년간 농공단지의 공장가동율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각 유형별로 공장가동율 증가율은 통계적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F값=2.00, prob=0.1219; F값=1.20, prob=0.3163).

〈표 3.17〉 농공단지의 가동율 및 증가율

(단위: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F값 (prob)
가동율 (2014)	입주계약	80.71	77.37	93.29	70.70	92.17	2.48 (0.0666)
	공정설립	84.15	81.10	93.29	76.85	95.67	1.42 (0.2442)
증가율 (2012 ~2014)	입주계약	5.06	-2.75	4.08	15.07	8.19	2.00 (0.1219)
	공정설립	-0.84	-5.27	1.92	1.21	-0.31	1.20 (0.3163)

4) 고용

농공단지의 고용규모는 평균 358.32명이고, 이중 남자는 248.20명, 여자는 110.13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현재 농가는 29.37명, 현지 비농가는

169.75명, 그리고 외지인은 159.21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공단지는 평균 350명 내외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주로 남성 중심의 고용을 하고 있고, 외지인과 현지인의 비중이 50대 5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지 농가의 고용비중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공단지의 유형별로 고용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총 고용규모에 보면, 2유형의 고용규모가 668.17명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4유형과 3유형이 각각 369.00명과 257.74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1유형은 198.83명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F값=2.94, prob=0.0379).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고용규모는 단지규모와 조성연수보다는 업종의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표 3.18〉 농공단지의 고용비중(2014)

(단위: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F값 (prob)
성별	남자	74.50	80.75[a]	67.66[b]	74.57[ab]	75.57[ab]	2.75 (0.0491)
	여자	25.50	19.25[b]	32.34[a]	25.43[ab]	24.43[ab]	2.75 (0.0491)
거주지역	현지농가	8.02	8.71	9.37	6.51	5.05	0.73 (0.5372)
	현지비농가	47.03	53.26[a]	51.66[a]	36.74[b]	38.54[b]	3.10 (0.0318)
	외지인	44.95	38.03[b]	38.98[b]	56.75[a]	56.41[a]	3.69 (0.0156)

그리고 농공단지의 유형별로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지 비농가와 외지인의 비중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현지 농가의 고용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F값=0.73, prob=0.0491). 우선 남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1유형(80.75%)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2유형(67.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유형과 4유형은 각각 74.57%과 75.57%인 것으로 나타났다(F값=2.75, prob=0.0491). 반면 여성의 고용비중은 남성의 고용비중과 상반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유형에서 가장 큰 여성고용의 비중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자의 거주지

역을 살펴보면, 현지 비농가는 1유형과 2유형에서 높은 반면(F값=3.10, prob=0.0318), 외지인은 비중은 3유형과 4유형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F값=3.69, prob=0.0156). 따라서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현지비농가의 고용비중이 높은 반면, 2000년대 이후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외지인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농가의 고용비중은 최대 10%가 되지 않는 것은 모든 농공단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공단지의 당초 조성목적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2년간 농공단지의 고용규모 변화추이(2012~2014)를 살펴보면, 총 고용규모는 20.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가 연평균 19.49% 증가하였고, 여성이 40.4%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 농공단지 내에서 고용증가는 주로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현지 비농가의 고용증가율이 279.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현지 농가가 64.10%, 외지인이 35.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거주지역에서는 현지 비농가의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2년간 고용규모의 변화추이는 4개의 농공단지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2년간 농공단지의 고용규모는 증가하였고, 주로 여성과 현지 비농가가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3.19〉 농공단지 고용규모의 변화추이(2012～2014)

(단위: 명)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F값 (prob)
총계		20.46	19.51	1.38	45.48	17.30	1.63 (0.1911)
성별	남자	19.49	20.25	2.14	38.38	22.73	1.08 (0.3652)
	여자	40.45	28.51	-0.14	113.89	7.73	1.32 (0.2739)
거주지역	현지농가	64.10	90.26	-16.56	170.30	34.35	0.62 (0.6063)
	현지비농가	279.47	750.27	2.85	107.25	76.79	1.20 (0.3169)
	외지인	35.19	28.65	15.46	56.32	69.76	1.04 (0.3794)

5) 생산액 및 수출액

농공단지의 생산액은 149,231.42백만원이고, 수출액은 35,894.63천불로 나타났다. 이를 농공단지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생산액(F값=0.24, prob=0.8714)과 수출액(F값=1.03, prob=0.384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공단지의 생산액과 수출액의 증가율은 농공단지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즉 생산액 증가율은 4유형(121.26%)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F값=3.14, prob=0.0306). 또한 수출액은 4유형(172.46%)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2유형과 3유형이 각각 79.40%와 137.83%이다. 반면 1유형은 수출액이 오히려 15.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공단지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4유형이 1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20〉 농공단지의 생산액 및 수출액 및 변화추이

(단위: 백만원, 천불,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F값 (prob)
규모	생산액	149,231.42	122,396.96	163,683.67	160,030.55	162,763.17	0.24 (0.8714)
	수출액	35,894.63	22,030.42	32,138.29	57,248.53	27,202.67	1.03 (0.3844)
증가율 (2012 ~2014)	생산액	29.21	7.42[b]	11.43[b]	49.08[b]	121.26[a]	3.14 (0.0306)
	수출액	73.64	-15.32[b]	78.40[ab]	137.83[ab]	172.46[a]	2.92 (0.0413)

4. 지원측면

1) 관리사무소

농공단지 중에서 독립된 관리사무소를 갖고 있는 경우는 불과 14개소(16.1%)에 불과하고,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 관리사무소를 부설로 두고 있는 경우는 6개소(6.9%)이다. 반면 67개소(77.0%)의 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를 위한 관리사무소를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농공단지의 4가지 유형별로 구분해 보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χ^2=3.0658, prob=0.8005). 따라서 충남지역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일부 농공단지에서만 제한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21〉 농공단지의 관리사무소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독립된 관리사무소	14 (16.1)	4 (13.3)	6 (25.0)	3 (11.1)	1 (16.7)
기업내부 관리사무소	6 (6.9)	3 (10.0)	1 (4.2)	2 (7.4)	0 (0.0)
미설치	67.0 (77.0)	23.0 (76.7)	17.0 (70.8)	22.0 (81.5)	5.0 (83.3)

χ^2=3.0658, df=6, prob=0.8005

2) 폐수처리장

농공단지 중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32개소(36.8%)이고, 폐수처리장이 없는 경우는 55개소(63.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공단지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수처리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최근에 조성된 농공단지에서 폐수처리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농공단지의 4가지 유형에 따라 폐수처리장의 설치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χ^2=12.5205, prob=0.0058). 즉 과거에 조성된 1유형은 폐수처리장의 설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2유형과 3유형, 그리고 4유형은 폐수처리장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과거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경우는 일정정도 규모가 있는 경우에만 조성되었고, 최근에는 농공단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설치는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농공단지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설치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유	32 (36.8)	4 (13.3)	14 (58.3)	11 (40.7)	3 (50.0)
무	55 (63.2)	26 (86.7)	10 (41.7)	16 (59.3)	3 (50.0)

χ^2=12.5205, df=3, prob=0.0058

3) 근로자아파트

농공단지 내부에 근로자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는 13개소(14.9%)이고, 그 외 74개소(85.1%)는 근로자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근로자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4가지 농공단지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χ^2=3.9563, prob=0.2662). 다만 기 조성된 13개의 농공단지의 근로자아파트를 살펴보면, 주로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된 경우가 11개로 절

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농공단지에서는 근로자아파트를 조성하고 있지 않고 있고, 조성된 근로자아파트는 주로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에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23〉 농공단지의 근로자아파트 설치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유	13 (14.9)	6 (20.0)	5 (20.8)	1 (3.7)	1 (16.7)
무	74 (85.1)	24 (80.0)	19 (79.2)	26 (96.3)	5 (83.3)

χ^2=3.9563, df=3, prob=0.2662

4) 기숙사

농공단지 내부에 기숙사가 설치된 경우는 26개소(29.9%)이고, 기숙사가 없는 경우는 61개소(70.1%)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공단지에는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4개 농공단지의 유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χ^2=1.3136, prob=0.7259).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농공단지에서는 별도의 기숙사를 설치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24〉 농공단지의 기숙사 설치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유	26 (29.9)	8 (26.7)	7 (29.2)	10 (37.0)	1 (16.7)
무	61 (70.1)	22 (73.3)	17 (70.8)	17 (63.0)	5 (83.3)

χ^2=1.3136, df=3, prob=0.7259

5) 탁아소 및 유치원

농공단지 내부에 탁아소 및 유치원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87개소 중에서 불과 1곳에 불과하다. 충남에서 농공단지에 탁아소 및 유치원이 설치된 곳은 홍성군 구항농공단지가 유일하다. 따라서 농공단지 4개의 유형 모두에서 탁아소 및 유치원이 전혀 설치·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25〉 농공단지의 탁아소 및 유치원 설치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전체	87 (100.0)	30 (100.0)	24 (100.0)	27 (100.0)	6 (100.0)
유	1 (1.2)	0 (0.0)	1 (4.2)	0 (0.0)	0 (0.0)
무	86 (98.9)	30 (100.0)	23 (95.8)	27 (100.0)	6 (100.0)

χ^2=2.6555, df=3, prob=0.4478

5. 활성화 수준

유형별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체수, 가동율, 고용인원, 생산액, 수출액의 표준점수 평균을 이용하였다. 농공단지 유형별로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대해서 고찰하며 다음과 같다.

1)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

우선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의 경우, 활성화 수준이 양의 값을 가진 곳은 고덕(예산), 동면(천안), 홍산(부여)의 3곳뿐이다. 그 외 27개 농공단지는 음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농공단지는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라고 할 수 있다.

〈표 3.26〉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

시군	공단명	업체수	가동율	고용	생산액	수출액	총점
예산군	고덕	-0.059	1.766	1.509	0.527	-0.574	0.634
천안시	동면	-0.059	-1.201	4.289	0.159	-0.409	0.556
부여군	홍산	-0.777	1.130	0.319	-0.458	.	0.053
공주시	정안	1.375	-0.566	-0.318	-0.770	0.253	-0.005
당진시	신평	0.658	-0.157	-0.026	-0.194	-0.576	-0.059
청양군	정산	-0.059	-0.202	0.087	0.252	-0.395	-0.064
아산시	탕정	-0.059	-0.202	-0.127	-0.105	.	-0.123
당진시	석문	-0.059	-0.202	-0.113	-0.151	-0.323	-0.170
아산시	배미	-0.059	-0.202	-0.092	-0.176	-0.432	-0.192
아산시	영인	-0.059	-0.202	-0.109	-0.226	-0.391	-0.198
청양군	비봉	-0.059	-0.202	-0.122	-0.038	-0.608	-0.206

〈표 3.26〉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계속)

시군	공단명	업체수	가동율	고용	생산액	수출액	총점
예산군	응봉	-0.059	-0.202	0.056	-0.362	-0.499	-0.214
아산시	신창	-0.059	-0.202	-0.263	-0.272	-0.424	-0.244
논산시	은진	-0.059	-0.202	-0.363	-0.241	-0.533	-0.280
천안시	목천	-0.059	-0.202	-0.478	-0.293	-0.400	-0.287
공주시	계룡	-0.059	-0.202	-0.465	-0.398	-0.351	-0.295
아산시	둔포	-0.059	-0.202	-0.245	-0.403	-0.586	-0.299
부여군	장암	-0.059	-0.202	-0.511	-0.504	.	-0.319
서산시	고북	-1.494	-0.202	0.974	-0.223	-0.710	-0.331
보령시	주산	-0.059	-0.202	-0.305	-0.979	.	-0.386
당진시	당진	-0.633	-0.202	-0.489	0.272	-0.894	-0.389
부여군	임천	-1.207	-0.452	-0.438	0.305	.	-0.448
당진시	면천	-0.581	-0.685	-0.464	-0.126	-0.730	-0.517
예산군	예덕	-0.059	-0.202	-0.859	-1.117	-0.632	-0.574
아산시	신인	-0.059	-4.198	-1.799	.	.	-2.019
서천군	서면(김가공특화)	.	.	.	.	.	.
서천군	종천2	.	.	.	.	.	.
홍성군	갈산2전문	.	.	.	.	.	.
공주시	월미2	.	.	.	.	.	.
논산시	강경	.	.	.	.	.	.

2)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 24개 중에서 활성화 수준이 양의 값을 가진 곳은 7곳이다.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 중 활성화 수준이 양호한 곳은 연산(논산), 구항(홍성), 득산(아산), 합덕(당진), 운곡(청양), 화성(청양), 광청(홍성) 농공단지이다. 그 외 17개 농공단지는 활성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의 경우, 다른 유형의 농공단지에 비해서 활성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7〉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

시군	공단명	업체수	가동율	고용	생산액	수출액	총점
논산시	연산	1.016	-0.157	0.091	0.268	4.898	1.223
홍성군	구항	0.658	0.070	-0.534	-0.457	1.479	0.243
아산시	득산	2.006	-0.202	-0.150	-0.384	-0.339	0.186
당진시	합덕	0.897	-0.372	0.214	-0.116	0.058	0.136
청양군	운곡	-0.734	1.036	-0.394	0.462	.	0.092
청양군	화성	0.419	0.616	-0.123	-0.585	-0.069	0.052
홍성군	광천	-0.697	-0.299	-0.672	1.674	.	0.002
금산군	금성	-0.653	-0.114	-0.057	-0.458	0.881	-0.080
공주시	검상	1.128	0.008	-0.555	-0.325	-0.926	-0.134
천안시	백석	-0.197	-0.202	0.368	-0.251	-0.447	-0.146
금산군	복수	0.350	0.506	-0.679	-0.179	-0.730	-0.146
서천군	장항원수	-0.397	-0.202	0.076	-0.155	-0.392	-0.214
서산시	수석	-0.059	-0.202	-0.514	-0.131	-0.291	-0.240
보령시	대천	-0.059	-0.202	-0.305	-0.234	-0.423	-0.245
보령시	웅천	-0.059	-0.202	-0.305	-0.352	-0.351	-0.254
보령시	웅천석재	-0.059	-0.202	-0.305	-0.334	-0.401	-0.261
논산시	가야곡	-0.606	0.008	0.005	-0.740	0.018	-0.263
보령시	주포	-0.059	-0.202	-0.305	-0.345	-0.411	-0.265
태안군	태안	-0.361	-0.244	-0.322	-0.065	-0.331	-0.265
공주시	장기	-1.016	-0.347	-0.477	0.118	0.155	-0.313
예산군	예산	-0.985	-0.202	-0.297	-0.434	0.125	-0.359
서천군	종천	-0.755	0.343	-0.427	-0.339	-0.710	-0.378
천안시	직산	-0.059	-0.202	-0.540	-0.677	-0.507	-0.397
부여군	은산	-0.418	0.029	-0.628	-0.466	-0.714	-0.439

3)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 27개 중에서 활성화 수준이 양의 값을 가진 곳은 모두 10개 농공단지이다. 이는 유형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이다.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 중에서 활성화 수준이 양인 경우는 월미(공주), 도고(아산), 광천김특화(홍성), 은하(홍성), 보물(공주), 명천자동차전문(서산), 장항원수제2(서천), 동산(논산), 공주(우성), 삽교(예산) 농공단지이다.

〈표 3.28〉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

시군	공단명	업체수	가동율	고용	생산액	수출액	총점
공주시	월미	0.578	5.489	3.931	4.095	0.418	2.902
아산시	도고	2.236	2.462	4.015	3.112	0.266	2.418
홍성군	광천김특화	3.766	2.195	1.798	0.628	2.211	2.120
홍성군	은하	-0.059	-0.202	-0.116	-0.467	2.709	0.373
공주시	보물	-0.059	-0.202	1.188	0.246	0.626	0.360
서산시	명천자동차전문	-0.059	0.448	0.716	0.248	.	0.338
서천군	장항원수제2	-0.581	0.675	0.800	-0.247	0.557	0.241
논산시	동산	-0.059	-0.202	-0.142	-0.104	0.785	0.055
공주시	우성(전문)	-0.879	0.473	-0.466	-0.123	1.186	0.038
예산군	삽교전문	-0.059	0.454	0.334	-0.727	.	0.000
예산군	관작전문	-0.059	-0.773	0.143	1.436	-0.903	-0.031
공주시	유구	-0.059	-0.202	-0.258	-0.963	1.236	-0.049
보령시	주포제2	-0.059	.	.	.	.	-0.059
보령시	청소	-0.059	.	.	.	.	-0.059
예산군	증곡전문	-0.059	.	.	.	.	-0.059
논산시	연무	-0.059	-0.202	-0.177	0.278	-0.779	-0.188
당진시	한진	-0.059	-0.202	-0.003	-0.368	-0.478	-0.222
홍성군	은하전문	-0.059	-0.202	-0.667	-0.113	-0.321	-0.273
서산시	성연	-0.059	-0.202	-1.126	-0.104	-0.161	-0.331
공주시	의당복합	-0.059	-0.202	-1.362	0.171	.	-0.363
청양군	학당	-0.059	-0.202	-0.422	-1.134	-0.617	-0.487
논산시	양지	-0.059	-1.201	-0.225	-0.535	-0.430	-0.490
아산시	둔포제2	-3.502	-0.202	-0.489	-1.134	-0.356	-1.137
논산시	양지제2	-2.928	.	.	.	.	-2.928
금산군	인삼약초특화	.	.	.	.	.	.
부여군	은산2	.	.	.	.	.	.
청양군	운곡2	.	.	.	.	.	.

4)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 중에서 활성화 수준이 양이 경우는 4곳이다. 정안2(공주), 신암(예산), 추부(금산), 갈산(홍성) 농공단지는 활성화 수준이 양의 값을 가지고, 그 외 결산(홍성)과 송악(당진)은 음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는 전체 4개 유형 중에서 가장 정책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9〉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

시군	공단명	업체수	가동율	고용	생산액	수출액	총점
공주시	정안2	3.527	1.193	0.288	5.203	0.098	2.062
예산군	신암	0.984	-0.202	0.489	0.952	0.823	0.609
금산군	추부	0.126	0.131	-0.226	-0.431	2.339	0.388
홍성군	갈산전문	1.662	-0.202	-0.096	0.011	-0.078	0.259
홍성군	결성전문	0.170	-0.012	-0.546	0.146	.	-0.060
당진시	송악	0.278	-0.157	-0.192	-0.051	-0.488	-0.122

5) 분석결과의 종합

표준화점수를 가지고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활성화된 농공단지는 총 24개소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는 3개소,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는 7개소,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는 10개소, 그리고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는 4개소이다. 표준화점수를 이용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분석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라는 할 수 있는 27.6%를 기준으로 해서 유형별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30〉 농공단지 활성화 수준의 종합

(단위: 개소, %)

구분	단지수	활성화된 단지수	활성화 비율
전체	87	24	27.6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	30	3	10.0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	24	7	29.2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	27	10	37.0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	6	4	66.7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이 낮은 것은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라고 할 수 있고,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는 활성화 수준이 보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선행연구에서 농공단지의 노후화가 농공단지 침체의 주요 요인이라고 한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활성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농공단지의 노후화이다. 즉 농공단지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공단지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봤을 때, 농공단지 노후화가 농공단지의 침체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농공단지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농공단지가 너무 소규모 개발되어서 충분한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의 4개 유형에서 가장 침체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1유형만 해당된다. 만약 노후화가 농공단지의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2유형도 전반적으로 침체되어야 하지만, 2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공단지 활성화의 초점을 농공단지 노후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개발된 농공단지의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향후 농공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기 조성된 농공단지 혹은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공단지 주변의 부지를 중심으로 개별입지를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접근과 더불어 기존의 노후화된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지원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4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농공단지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조성측면, 규모측면, 기업측면, 지원측면 등에서 분석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을 진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농공단지의 조성연도와 가동업체수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노후 소규모 농공단지,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으로 구분해 충남 농공단지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공단지의 조성측면에서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의 4가지 유형별로 지역별 분포는 큰 특징 없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2) 2000년 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노후 소규모, 노후 중규모)는 단독 개발된 반면, 2000년 이후에 조성된 농공단지(일반 소규모, 일반 중규모)는 인근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개발되었다. 3) 4가지 유형 모두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나타났다. 4)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추가지원농어촌지역과 일반농어촌지역에 조성되었고, 2000년 이전에는 일반농공단지가,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일반농공단지와 전문농공단지가 함께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5)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공공주로로 농공단지가 개발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농공단지의 규모측면에서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의 투자비와 분양가는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가 가장 높고, 반면 오후 소규모 농공단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조성연도와 규모에 비해서 투자비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공정율은 4가지 유형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공사기간은 2000년 이후가 그 이전

보다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입주기업의 가동연수는 조성연도에 따라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가 2000년대 이후에 조성된 농공단지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2) 조성면적을 보면 농공단지의 대부분의 면적은 산업용지로 개발되고, 지원 및 녹지공간은 매우 제한적으로 조성되었다. 다만 최근에는 녹지면적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4가지 유형의 농공단지 모두 개발된 면적 대부분이 분양되어 비분양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4가지 유형의 농공단지 중 소규모 농공단지(노후, 일반)는 특정 업종으로 입주제한을 하지 않는 반면, 중규모 농공단지(노후, 일반)는 업종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농공단지의 지정 및 준공연도는 4가지 농공단지 유형별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즉 농공단지는 2000년 이전에 지정 및 준공된 경우와 2000년대 이후에 지정 및 준공된 경우로 구분이 된다.

셋째, 농공단지의 기업측면에서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농공단지(노후, 일반)는 입주업체가 10개소 이하인 반면, 중규모 농공단지(노후, 일반)는 20개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4개 농공단지 모두 매우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식료 등 농어촌과 산업적 연계성이 높은 업종은 그 비중이 낮았다. 3) 4개 농공단지의 가동율은 모두 높게 나타났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주계약업체를 기준으로는 가동율이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장설립을 기준으로는 가동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농공단지는 주로 남성의 고용비중이 높은 편이고, 주로 현지 비농가와 외지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지 농가의 고용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편 2000년대 이전 농공단지는 최근 여성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5) 농공단지의 생산액 및 수출액은 양호한 수준이고,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는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에 비해서 생산액과 수출액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농공단지의 지원측면에서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 중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14개소로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폐수처리장의 경우는 폐수처리장이 없는 경우가 더 만지만, 2000년대 이후 조성된 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농공단지 중 근로자아파트가 조성된 경우는 13개소로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근로자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숙사도 26개 농공단지에만 조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공단지에 기숙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탁아소 및 유치원의 경우는 단 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공단지에 탁아소 및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충남 농공단지 실태분석의 종합

구분		주요 특징
조성 측면	지역분포	시군별로 균등하게 분포(계룡시 제외)
	연계개발	2000년 이전에는 단독개발, 2000년 이후는 인근 농공단지와 연계개발
	조성 및 분양상태	대부분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된 상태
	조성지역 및 유형	추가지원농어촌지역과 일반농어촌지역에 조성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일반농공단지이나, 2000년 이후에는 전문농공단지 조성 증가
	개발주체	2000년 이전에는 주로 공공주도 개발 2000년 이후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
규모 측면	투자비 및 조성기간	투자비가 확대되고 있음 조성공정율은 매운 높은 수준 2000년 이후 공사기간 증가 입주업체의 가동연수는 농공단지 조성연수와 일치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최근 증가
	조성면적	소규모로 산업단지 중심의 개발 최근에는 녹지면적이 다소 증가
	분양면적	높은 분양율 미분양이 문제가 되지 않음
	업종제한	소규모 농공단지는 입주업종제한 없음 중규모 농공단지는 입주업종 제한 있음
	지정 및 준공연도	2000년 이전의 조성된 농공단지와 2000년 이후에 조성된 농공단지로 구분
기업 측면	입주업체수	소규모 농공단지는 10개 이하 중규모 농공단지는 20개 입주
	업종유형	매우 다양한 업종이 고루 분포 농어촌산업과 연계성 부족
	가동율	높은 가동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도 높아지고 있음
	고용	주로 남자 고용 주로 현지 비농가와 외지인을 고용하고 있음 2000년 이후 농공단지는 여성의 고용비중이 증가
	생산액 및 수출액	생산액과 수출액이 계속 증가 2000년 이전의 소규모 농공단지는 수출액 감소
지원 측면	관리사무소	대부분 없음
	폐수처리장	2000년 이후 소규모 농공단지는 폐수처리장이 없음 전반적으로 폐수처리장의 확보가 낮은 수준
	근로자아파트	대부분 없음
	기숙사	대부분 없음
	탁아소 및 유치원	대부분 없음
활성화 수준	노후 소규모	30개소 중 활성화된 곳은 3개소(10.0%)
	노후 중규모	24개소 중 활성화된 곳은 7개소(29.2%)
	일반 소규모	27개소 중 활성화된 곳은 10개소(37.0%)
	일반 중규모	6개소 중 활성화된 곳은 4개소(66.7%)

다섯째,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을 살펴보면, 4가지 유형 중에서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가 활성화 수준이 낮고, 그 외 3가지 유형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노후화가 농공단지의 침체요인이라기 보다는 농공단지의 소규모화가 더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공단지는 활발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가 지역의 산업과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농공단지의 정책을 단순한 농공단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그리고 산업단지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농공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최소 2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하고, 입주업종을 지역산업과 연계해 제약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농공단지의 입주업종을 음식료품 등으로 제약해 식품산업의 특화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농공단지를 유형화 해 볼 때,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는 물리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 특히 노후 농공단지 중에서 소규모 농공단지에 대한 정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농공단지의 활성화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의 유형별로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선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김선배외(2010),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수(2014),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혁신 방안”, 산업입지, 제55호.

김인중(201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 산업입지, 제27호.

김중표외(1998),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판매지원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박시현(2014),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산업입지, 제27호.

배경화외(200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농공단지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우장명(2008), “충북의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역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이관률(2014), “당진시 농공단지의 정책수요와 활성화 방안”, 당진시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포럼 발표자료집.

이동필(2010), “농공단지 개발정책의 평가 및 새로운 정책과제”, 제5차 정기총회 및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정기포럼.

이동필외(1996),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철우(2008), “대도시 주변 농공단지의 존립기반과 정책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임동환(2014), “농공단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산업입지, 제27호.

임유라외(2010), “농공단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장철순(2011), “농공단지의 노후도 분석 및 활성화 방안”, KRIHS Issue paper 2011-30.

장철순(2015), “산업단지 개발 합리화를 위한 정책방향”, 산업입지, 제57호.

조혜영(2014), “농공단지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산업입지, 제27호.

최경환외(2012),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외(2014), 농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2014), 충청남도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

한국산업단지공단(2008), 농공단지 개발 및 지원업무 편람.

한국산업단지공단(2009), 노후공업지역의 재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 록

부록. 충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

〈부표〉 충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

시군	공단명	유형	업체수	가동율	고용	생산액	수출액	총점
공주시	월미	3	0.578	5.489	3.931	4.095	0.418	2.902
아산시	도고	3	2.236	2.462	4.015	3.112	0.266	2.418
홍성군	광천김특화	3	3.766	2.195	1.798	0.628	2.211	2.120
공주시	정안2	4	3.527	1.193	0.288	5.203	0.098	2.062
논산시	연산	2	1.016	-0.157	0.091	0.268	4.898	1.223
예산군	고덕	1	-0.059	1.766	1.509	0.527	-0.574	0.634
예산군	신암	4	0.984	-0.202	0.489	0.952	0.823	0.609
천안시	동면	1	-0.059	-1.201	4.289	0.159	-0.409	0.556
금산군	추부	4	0.126	0.131	-0.226	-0.431	2.339	0.388
홍성군	은하	3	-0.059	-0.202	-0.116	-0.467	2.709	0.373
공주시	보물	3	-0.059	-0.202	1.188	0.246	0.626	0.360
서산시	명천자동차전문	3	-0.059	0.448	0.716	0.248	.	0.338
홍성군	갈산전문	4	1.662	-0.202	-0.096	0.011	-0.078	0.259
홍성군	구항	2	0.658	0.070	-0.534	-0.457	1.479	0.243
서천군	장항원수제2	3	-0.581	0.675	0.800	-0.247	0.557	0.241
아산시	득산	2	2.006	-0.202	-0.150	-0.384	-0.339	0.186
당진시	합덕	2	0.897	-0.372	0.214	-0.116	0.058	0.136
청양군	운곡	2	-0.734	1.036	-0.394	0.462	.	0.092
논산시	동산	3	-0.059	-0.202	-0.142	-0.104	0.785	0.055
부여군	홍산	1	-0.777	1.130	0.319	-0.458	.	0.053
청양군	화성	2	0.419	0.616	-0.123	-0.585	-0.069	0.052
공주시	우성(전문)	3	-0.879	0.473	-0.466	-0.123	1.186	0.038
홍성군	광천	2	-0.697	-0.299	-0.672	1.674	.	0.002
예산군	삽교전문	3	-0.059	0.454	0.334	-0.727	.	0.000
공주시	정안	1	1.375	-0.566	-0.318	-0.770	0.253	-0.005
예산군	관작전문	3	-0.059	-0.773	0.143	1.436	-0.903	-0.031
공주시	유구	3	-0.059	-0.202	-0.258	-0.963	1.236	-0.049
당진시	신평	1	0.658	-0.157	-0.026	-0.194	-0.576	-0.059
보령시	주포제2	3	-0.059	.	.	.	.	-0.059
보령시	청소	3	-0.059	.	.	.	.	-0.059
예산군	증곡전문	3	-0.059	.	.	.	.	-0.059
홍성군	결성전문	4	0.170	-0.012	-0.546	0.146	.	-0.060
청양군	정산	1	-0.059	-0.202	0.087	0.252	-0.395	-0.064
금산군	금성	2	-0.653	-0.114	-0.057	-0.458	0.881	-0.080
당진시	송악	4	0.278	-0.157	-0.192	-0.051	-0.488	-0.122
아산시	탕정	1	-0.059	-0.202	-0.127	-0.105	.	-0.123
공주시	검상	2	1.128	0.008	-0.555	-0.325	-0.926	-0.134
천안시	백석	2	-0.197	-0.202	0.368	-0.251	-0.447	-0.146
금산군	복수	2	0.350	0.506	-0.679	-0.179	-0.730	-0.146
당진시	석문	1	-0.059	-0.202	-0.113	-0.151	-0.323	-0.170

〈부표〉 충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계속)

시군	공단명	유형	업체수	가동율	고용	생산액	수출액	총점
논산시	연무	3	-0.059	-0.202	-0.177	0.278	-0.779	-0.188
아산시	배미	1	-0.059	-0.202	-0.092	-0.176	-0.432	-0.192
아산시	영인	1	-0.059	-0.202	-0.109	-0.226	-0.391	-0.198
청양군	비봉	1	-0.059	-0.202	-0.122	-0.038	-0.608	-0.206
예산군	응봉	1	-0.059	-0.202	0.056	-0.362	-0.499	-0.214
서천군	장항원수	2	-0.397	-0.202	0.076	-0.155	-0.392	-0.214
당진시	한진	3	-0.059	-0.202	-0.003	-0.368	-0.478	-0.222
서산시	수석	2	-0.059	-0.202	-0.514	-0.131	-0.291	-0.240
아산시	신창	1	-0.059	-0.202	-0.263	-0.272	-0.424	-0.244
보령시	대천	2	-0.059	-0.202	-0.305	-0.234	-0.423	-0.245
보령시	웅천	2	-0.059	-0.202	-0.305	-0.352	-0.351	-0.254
보령시	웅천석재	2	-0.059	-0.202	-0.305	-0.334	-0.401	-0.261
논산시	가야곡	2	-0.606	0.008	0.005	-0.740	0.018	-0.263
보령시	주포	2	-0.059	-0.202	-0.305	-0.345	-0.411	-0.265
태안군	태안	2	-0.361	-0.244	-0.322	-0.065	-0.331	-0.265
홍성군	은하전문	3	-0.059	-0.202	-0.667	-0.113	-0.321	-0.273
논산시	은진	1	-0.059	-0.202	-0.363	-0.241	-0.533	-0.280
천안시	목천	1	-0.059	-0.202	-0.478	-0.293	-0.400	-0.287
공주시	계룡	1	-0.059	-0.202	-0.465	-0.398	-0.351	-0.295
아산시	둔포	1	-0.059	-0.202	-0.245	-0.403	-0.586	-0.299
공주시	장기	2	-1.016	-0.347	-0.477	0.118	0.155	-0.313
부여군	장암	1	-0.059	-0.202	-0.511	-0.504	.	-0.319
서산시	성연	3	-0.059	-0.202	-1.126	-0.104	-0.161	-0.331
서산시	고북	1	-1.494	-0.202	0.974	-0.223	-0.710	-0.331
예산군	예산	2	-0.985	-0.202	-0.297	-0.434	0.125	-0.359
공주시	의당복합	3	-0.059	-0.202	-1.362	0.171	.	-0.363
서천군	종천	2	-0.755	0.343	-0.427	-0.339	-0.710	-0.378
보령시	주산	1	-0.059	-0.202	-0.305	-0.979	.	-0.386
당진시	당진	1	-0.633	-0.202	-0.489	0.272	-0.894	-0.389
천안시	직산	2	-0.059	-0.202	-0.540	-0.677	-0.507	-0.397
부여군	은산	2	-0.418	0.029	-0.628	-0.466	-0.714	-0.439
부여군	임천	1	-1.207	-0.452	-0.438	0.305	.	-0.448
청양군	학당	3	-0.059	-0.202	-0.422	-1.134	-0.617	-0.487
논산시	양지	3	-0.059	-1.201	-0.225	-0.535	-0.430	-0.490
당진시	면천	1	-0.581	-0.685	-0.464	-0.126	-0.730	-0.517
예산군	예덕	1	-0.059	-0.202	-0.859	-1.117	-0.632	-0.574
아산시	둔포제2	3	-3.502	-0.202	-0.489	-1.134	-0.356	-1.137
아산시	신인	1	-0.059	-4.198	-1.799	.	.	-2.019
논산시	양지제2	3	-2.928	.	.	.	.	-2.928
금산군	인삼약초특화	3	.	.	.	.	.	.

〈부표〉 충남 농공단지의 활성화 수준(계속)

시군	공단명	유형	업체수	가동율	고용	생산액	수출액	총점
부여군	은산2	3	.	.	.	.	.	.
서천군	서면(김가공특화)	1	.	.	.	.	.	.
서천군	종천2	1	.	.	.	.	.	.
홍성군	갈산2전문	1	.	.	.	.	.	.
청양군	운곡2	3	.	.	.	.	.	.
공주시	월미2	1	.	.	.	.	.	.
논산시	강경	1	.	.	.	.	.	.

주: 유형1은 노후 소규모 농공단지, 유형2는 노후 중규모 농공단지, 유형3은 일반 소규모 농공단지, 유형4는 일반 중규모 농공단지를 의미함.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략연구 2015-22 · 충남 농공단지의 실태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글쓴이 · 이관률 /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5년 7월 31일 / 발행 · 2015년 7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04(농촌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19
ISBN · 978-89-6124-313-1 03350

http://www.cni.re.kr

ⓒ 2015,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